

- 주요 뉴스: 미국 4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, 정점 통과 여부 및 통화정책 영향 등에 관심
 -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연준의 통화긴축이 뒤쳐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
 -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예금금리를 연내에 플러스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
 - 중국 총리, 경제 봉쇄 여파로 인한 심각한 고용 여건을 경고
 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0.2%], 달러화 강세[+0.7%], 금리 상승[+19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기업이익 및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주 후반 매도 증가
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4.6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매수세 강화
 유로화 가치는 0.1% 상승, 엔화는 0.7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9bp 상승
-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3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5/6일	4/29일	전주말대비			5/6일	4/29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123.3	4,131.9	-0.21%	국채 금리 10y	미국	3.13%	2.93%	19bp
	유럽	429.91	450.39	-4.55%		독일	1.13%	0.94%	19bp
	중국	3,001.6	3,047.1	-1.49%	CDS 5y	한국	42bp	40bp	2bp
	일본	27,004	휴장	0.58%		중국	84bp	78bp	6bp
	한국	2,644.5	2,695.1	-1.88%	위험 지표	EMBI+	393	394	-1bp
환율	달러지수	103.66	102.96	0.68%		VIX	30.19	33.40	-9.61%
	유로화	1.0551	1.0545	0.06%		WTI유	109.77	104.69	4.85%
	엔화	130.56	129.70	-0.66%	원자재	구리	426.2	439.5	-3.04%
	위안화	6.6668	6.6085	-0.87%		금	1,883.8	1,896.9	-0.69%
	원화	1,272.7	1,255.9	-1.3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4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, 정점 통과 여부 및 통화정책 영향 등에 관심

- 이번 주(5/11일) 4월 소비자물가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, 시장에서는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0.2%, 8.1% 올라 3월(각각 1.2%, 8.5%)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. 4월 근원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6.0% 상승하여 3월(6.5%)에 비해 낮지만,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0.4% 올라 3월(0.3%)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
- 만일 이러한 전망이 틀리지 않는다면,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각이 확산될 가능성. 다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, 현행 금리인상 경로의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소지
- 또한 Bankrate의 Greg McBride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어도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가운데 비중(40%)이 높은 주거비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
- 한편 일부에서는 6월 FOMC가 개최되기 전까지 4월 및 5월 소비자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, 만일 결과가 시장의 예상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낸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연준의 통화긴축이 뒤쳐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

- 블라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 향후 신속한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하나, 연준의 통화긴축 결정이 인플레이션에 비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. 시장금리가 정책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여 이미 큰 폭 상승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
-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0.75%p 정책금리 인상이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발언.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도 조정된다고 부연. 한편 클라리다 전 부의장은 정책금리를 3.5%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 피력

■ 미국 4월 소비자의 신용 및 직불카드 지출, 인플레이션 불구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

- BofA에 따르면, 4월 소비자의 신용 및 직불카드 지출액이 전년동월비 13% 증가. 지출 증가율은 소득 기준 모든 계층에서 높은 편. 최근 금융기관들은 가계의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예금금리를 연내에 플러스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6월 말에 채권매입을 종료하고, -0.5%인 예금금리를 연말까지 플러스 수준으로 올려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충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. 이는 향후 3회 이상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
-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관망 기조를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일 수 있기에, 금리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
- ECB 슈나벨 이사는 러-우 전쟁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새로운 거시경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, 이러한 가운데 ECB가 인플레이션 제어 관련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

■ 중국 총리, 경제 봉쇄 여파로 인한 심각한 고용 여건을 경고

- 리커창 총리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요한 도시에서 경제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있기에, 모든 정부 기관들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

■ 4월 세계 식량가격지수, 전월비 소폭 하락. 곡물 가격 변화 등이 반영

-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에 따르면, 해당 지수는 158.5를 기록하여 전월(159.7) 대비 하락. FAO의 Maximo Torero Cullen은 다소 안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나 여전히 식품 인플레이션과 식량 안보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

■ 호주 중앙은행,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제시. 인플레이션 전망 큰 폭 상향

- 분기 보고서에서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을 이전보다 2%p 높은 4.6%로 추정.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5/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소비자신용잔액(억달러): 524.3, 2월(418.2), 예상치(25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5/9 현지시각 기준)

- 영란은행 손더스 위원 강연,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
- 유로존 5월 Sentix 투자신뢰지수, 중국 4월 수출입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미국 국채 금리, 인플레이션·통화긴축 등으로 '18년 최고치 상회할 가능성 - 블룸버그**
(Plenty of Catalysts to Help Push Treasury Rates Above 2018 Highs)
 - 높은 인플레이션, 연준의 보유 국채 축소 시사는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. 이에 더해 5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대규모 국채 발행을 고려한다면 3년, 10년, 30년 만기의 국채 금리가 '18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
 - 또한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장기국채 투자 시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. MUFG의 George Goncalves는 현재 10년물 국채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,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매력적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
- **유로존 임금상승 압력,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될 소지 - Financial Times**
(Eurozone's long-stagnating wages start to rise as cost of living soars)
 - 최근 유로존 역내 생계비 증가와 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증가.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노조들은 각각 임금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. 또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등의 근로자들은 물가상승에 연동되어 임금을 수령
 - 일부에서는 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임금상승이 필요하다고 주장. 이에 ECB는 '70년대 임금·물가의 연쇄상승 재현 가능성을 우려. 다만 일부 산업부문의 임금협상 연기와 부정적 경제전망 등은 임금 하방압력으로 작용
- **미국 달러화 강세, 양호한 경제 여건과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기인 - WSJ**
(Dollar Strength Bucks Inflation Woes)
- **신흥국 주가 부진, 연준의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지속될 전망 - 블룸버그**
(Vanishing Value Trade Puts Emerging Markets at Risk of Fed Shock)
- **중국의 저물가, 수요 둔화 및 당국의 가격 통제 등으로 당분간 유지 예상 - WSJ**
(China Remains an Outlier in a World of Surging Inflation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